직원이 건강한 일터, 국민에게 행복 주는 LX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는 지적측량·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167개 지사를 두고 있다. 현장 밀착형 안전보건경영은 LX공사의 핵심가치로 공간정보 기반의 '안전지도', '응급 SOS 애플리케이션' 등의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과 응급처치 교육은 중대재해 예방에 톡톡한 기여를 하는 중이다. 임직원 건강관리에도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찾아가는 건강상담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2022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가져왔다.

글·사진 한세정 대한산업보견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Mini interview

안전관리처 **변미진** 보건관리자

Q. LX공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LX'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건관리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전 기관 찾아가는 건강상담 서비스'를 통해 노동자들의 간경검진 사후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임직원 정서 관리를 위해서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민원으로 감정노동에 노출된 노동자, 순환 근무로 타지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노동자 등 직무별,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립산림치유원과 협약을 맺어 '숲 체험을 통해 힐링교육'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Q.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함께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직장 내 건강 친화적인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것인데요. 인증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다 보면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결정적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건관리 중요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 또한 함께 높아질 테고요.

Q. 보건관리자로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에 마스크를 지원했던 일이 생각나네요. 입사 후 첫 기획업무로 부담감도 컸지만 완성되었을 때의 뿌듯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LX 혈압측정 캠페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난해 11월 대한고혈압학회 주관 영상 공모전에 입상된 프로그램으로, 혈압 건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높였을 뿐 아니라 수상 상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의 다짐을 들려주세요.

보건관리자는 노동자가 발견하지 못하는 위험요소를 확인해 제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건강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 노동자를 향한 이해와 공감, 상황에 필요한 대책을 지도·조언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경영진과 수시로 소통하고, 직원·협력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최상의 보건관리 방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